

예능도 드라마도 모바일로 1020세대 노리는 콘텐츠들

“TV보다 자유로운 틀 안에서 신선한 소재·인물 활용”

매번 정시에 맞춰, 1시간 이상 TV 앞에 앉아 있을 1020(10·20대) 세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도 모바일로 드라마든 예능이든 콘텐츠 대부분을 소비한다.

최근 디지털마케팅기업 메조미디어 설문에서도 10대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주 12.2시간, 20대는 11.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국과 제작사들도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모바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10분 내외의 강렬한 콘텐츠들을 줄줄이 내놓는다.

◇ 1020 감성과 사회적 이슈를 그대로...웹드라마 키워드는 ‘공감’

웹 콘텐츠 중에서도 드라마 약진이 눈에 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신인 배우 등용문 정도로 여긴 웹드라마는 심지어 기성 배우도 아닌 연습생들을 내세워 공전의 히트를 한 ‘에이틴’ 같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1020세대 사이에선 주류가 됐다.

1020 세대에 인기 있는 웹드라마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공통점이 있다.

스튜디오 온스타일에서 선보인 ‘좀 예민해도 괜찮아?’는 스무살 새내기들이 캠퍼스 젠더 이슈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공개 한 달 만에 누적조회 수 2천만뷰를 돌파했다. 술자리 문화, 단체 채팅방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20대 여성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담은 덕분이다.

연출을 맡은 김기운 PD는 8일 “로맨스와 젠더 이슈를 담은 사회적 메시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 같다”고 자평했다.

또 다른 히트작 ‘연애 강요하는 사회’ 역시 연애도 스펙이 돼버린 사회에서 ‘우리는 꼭 연애를 해야 행복할까?’라는 화두를 던져 호응을 얻었다.

앞서 언급한 ‘플레이리스트’의 ‘에이틴’은 10대 감성을 그대로 반영해 내용뿐만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패션까지 10대 사이에서 화자했다.

이외에도 새내기 대학생들의 풋풋한 연애를 재밌게 그린 ‘한입만’, 스튜디오 룰



올리브 예능 ‘밤블레슈유’

루랄라의 ‘두텁이’의 어렵지 않은 학교생활’, 디고의 ‘연애는 무슨 연애’ 역시 1020 세대의 일상을 주제로 공감대를 얻는다.

인기 웹드라마 시조라 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연애 플레이리스트’는 오는 20일 시즌3을 방송하며 화제가 됐다.

◇ TV로도 모바일로도...새로운 시청 경험 주는 예능들

웹예능에서 TV 예능으로, TV 프로그램에서 웹예능으로. TV와 디지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청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주목받는다.

특히 웹예능들은 TV보다 자유로운 틀 안에서 신선한 소재와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살린다.

송은이와 김숙의 콘텐츠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국에서 배달된 고민에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올리브 ‘밤블레슈유’는 송은이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맛게스트 ‘비밀보장’, 유튜브 채널 ‘비보 티비’ 등을 만든 비보티비에서 기획한 예능으로 출발했다.

2016년 처음 선보인 엠넷의 M2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음악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100% 세로형 릴레이댄스 뮤직비디오 ‘릴레이댄스’, 방송사 최초로 선보인 팬캠 ‘MPD작업’, 아티스트의 셀프 뮤직비디오 ‘셀피 MC’ 등이 페이스북, 유튜브 티빙, 네이버TV 등으로



웹드라마 ‘좀 예민해도 괜찮아?’

공개돼 현재 구독자 수 777만명, 누적 조회 수 18억회를 기록 중이다.

tvN의 디지털 스튜디오 ‘홍베이커리’도 신선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tvN 예능 ‘인생술집’과 ‘놀라운 토요일’의 코너를 변주한 스피오프 콘텐츠 ‘겜생술집’, ‘시파라마켓’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다.

JTBC의 디지털콘텐츠 전문 채널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한 ‘와썹맨’은 JTBC ‘사서고생’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1세대 아이돌 그룹 지오디 출신 박준형을 내세워 구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붐을 일으킨다.

이렇듯 젊은 층의 영상 시청 형태 변화에 발맞춰 방송사들도 채널 산하에 디지털 전문 스튜디오 조직을 만드는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CJ ENM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연간 4천편의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상금이 무려 2억” 제대로 판 커진 ‘쇼미더머니 777’

2012년 시작해 국내 래퍼 배틀 프로그램 대표해온 엠넷 ‘쇼미더머니’가 틀도 판도 싹 바뀌어 돌아왔다.

엠넷은 7일 오후 11시 ‘쇼미더머니 777 (트리플세븐)’을 처음 방송한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리즈들과는 달리 프로듀서가 참가자에게 배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총상금은 2억원인데, 프로듀서들이 팀별로 5천만원씩 나눠 가진 후 래퍼 평가전을 보고 참가자에게 돈을 걸게 된다.

신정수 엠넷 국장은 이날 제작발표회에

서 “현재 가장 ‘핫한’, 1등 하는 래퍼가 누구인지를 돈이라는 장치로 살펴볼게 해 예능적 재미, 관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포맷에 변화를 준 이유를 밝혔다.

사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래퍼들이 말하는 돈의 의미는 ‘돈 앞에 굴복하지 말고, 돈으로 재능을 사려는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은 프로그램 제목부터 기존과 달리 ‘트리플세븐’으로, 엠넷이 남다르게 공을 들인 만큼 제작진 100여 명이 참여



했고 지원자도 1만3천여 명에 이른다.

프로듀서 군단도 스윙스&기리보이, 딥플로우&닉살, 더 콰이엇&장모, 팔로알토&코드쿤스트로 경쟁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9월 10일 (음력 8월 1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子	60년생: 입장이자 대립이 생기니 난처하다. 72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지니 인맥이 쌓인다. 84년생: 때론 겉치레로 관심을 살 필요도 있다. 96년생: 과학 욕심은 근심의 씨앗이 될 것이다.	 午	66년생: 본분을 잃으면 체면에 손상이 온다. 78년생: 복잡한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 최고다. 90년생: 경험자의 조언은 인생의 밑거름이다. 02년생: 새로운 설계나 자격증에 도전해보라.
 丑	61년생: 주위 도움으로 나날이 안정이 되겠다. 73년생: 부하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하라. 85년생: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해야 한다. 97년생: 지금 순해라도 내일이 기다리고있다.	 未	67년생: 돈 되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니 상황에 맞게 진행해보도 손조롭겠다. 79년생: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 분주할 수 있다. 91년생: 미신은 굳은 결심만 불안정하게 만든다.
 寅	62년생: 합의점을 찾아 협력관계를 유지하자. 74년생: 각종 상담과 계약이 유리하게 풀린다. 86년생: 시비구설이나 말썽이 생기니 주의하자. 98년생: 일은 나누면서 추진해야 성과가 좋다.	 申	68년생: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더라도 신중하라. 80년생: 친구나 연인사이에 즐거운 만남이 있으니 복장을 단정히 하여 나가보자. 92년생: 사이하는 물건이 있다면 얼른 사버려라.
 卯	63년생: 대화의 문이 닫히지않게 잘 유도하라. 75년생: 웬지 남의 것이 더 커보이나 동일하다. 87년생: 일에 매달리니 과로를 주의해야겠다. 99년생: 가정의 경사나 주위에 기쁨이 생긴다.	 酉	69년생: 대우가 좋아지니 거만해지지 말라. 81년생: 열심히 행하지만 결과가 불안 불안하다. 93년생: 상담 중 처세술에 미숙함이 생기니 당황하지말고 있는그대대로 보여주자.
 辰	64년생: 삶의 방식이나 목표를 바꿔봐도 좋다. 76년생: 가족과 서운해도 이해가 필요하다. 88년생: 정색을 하거나 꾸중보다 격려를 하라. 00년생: 조조해지고 급해지니 서두르지말라.	 戌	70년생: 각기 다른 의견들 속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니 끊임없이 노력해보자. 82년생: 혼자 조용히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 94년생: 후배에게 인생하지말고 배플 길 바란다.
 巳	65년생: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에 관심 갖자. 77년생: 좋은 일도 무리하면 낭패를 당한다. 89년생: 이득없는 만남이니 외출은 다음에하자. 01년생: 내 뜻과 주관을 분명히 표현해야한다.	 亥	59년생: 의미있는 곳의 지출은 아무렴 좋다. 71년생: 복지부동이 최선이니 일을 늘리지말라. 83년생: 의욕이 넘치니 일의 성사 확률이 크다. 95년생: 불만이나 불평하는 마음을 절제하자.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